

##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정희영(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논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과거 기독교학교 교육의 역사를 해석학적 방법으로 서술함으로써 현대 교육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현대 기독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설립,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역할, 초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책임이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설립에서는 우리나라 기독교학교 설립초기의 사회적 배경으로 정치적 상황과 교육적 상황, 그리고 종교적 상황을 언급하였다. 기독교학교설립 부분에서는 1885년부터 1909년 사이에 설립된 기독교학교들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역할로는 민족운동과 구국운동, 여성운동,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초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책임이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의미로는 기독교학교의 수,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 그리고 교사의 지도력과 소명의식에 대한 시사점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근거로 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의 고취와 재정적 투자로 인한 기독교학교의 설립,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적 특징을 지닌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사재교육실시, 기독교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기관의 활발한 역할, 그리고 기독교학교 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영적 각성을 위한 대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책임, 기독교학교의 수,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 교사재교육, 소명의식

---

2007년 11월9일 접수; 2007년 12월3일 수정; 2007년 12월15일 게재 확정

- I. 서론
- II.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설립
- III.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역할
- IV. 초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책임이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의미
- V. 결론

## I. 서론

교육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에는 대개 규범적 교육학의 역사이해, 해석학적 방법론의 입장, 경험적-합리주의적 교육학의 역사이해, 비판이론, 그리고 사적 유물론적 입장 등의 다섯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오인택, 1982, 186). 규범적 교육학의 역사서술은 어떤 초시간적, 공간적 이념을 추구하고 경험적-합리주의적 교육학의 역사서술은 보편타당성을 추구한다. 이에 반해 해석학적 방법론의 입장은 정신과학적 입장에서 교육사를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과 특수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현상의 역사성과 그 의미를 추구한다. 비판적 이론은 교육의 불평등과 부정의가 유지되는 과정과 구조를 개인적, 사회문화적 제반수준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하며 사적 유물론적 입장은 교육학적 본질을 요구하는 관념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해석학적 방법론의 입장과 같은 맥락에서 김인회는 교육의 역사서술을 다음의 세 단계로 설명한다. 첫째,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변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회 내부의 작용을 사회적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구조적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 속에는 대개 교육의 힘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사는 사회적 힘의 원인과 그 결과를 교육적 측면에서 분

석하고 교육이 어떻게 사회적 힘의 구실을 해 왔는가를 규명해냄으로써 사회적 힘과 교육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둘째, 교육은 역사적 행위이므로 그 교육을 있게 하는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요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그와 같은 교육이 왜 이루어져야 했는가 하는 이유를 탐색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사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의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조명해 보는 것이다. 만일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조명이 없다면 과거의 결과가 아무리 탁월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원석, 1993, 16, 재인용). 따라서 교육의 역사적 고찰은 교육의 과거에 대한 서술을 통해 현재에 대한 반성과 시사점을 찾는 것이며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많은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무시무시한 핵무기고, 인권침해의 만연, 환경과 에너지의 위기, 장기 실업, 결혼과 가정의 안전을 침해하는 세력들, 성적 타락, 물질주의의 만연, 초월적 실재에 대한 감각상실 현상(존 스토트, 2005, 539)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독교적 지도력이 요구되며 이것은 기독교교육을 통해 가능하다(오춘희, 2005, 14). 김인회의 주장처럼, 사회 내부에서 사회의 변화나 그것을 막는 요인을 제공해 주는 사회적 힘이 결국 교육의 힘에 의해 작용됨을 볼 때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힘은 기독교교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조명해 보고 현대에 주는 의미를 찾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대 기독교와 기독교학교에 주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기독교교육과 사회적 힘의 관계를 규명해봄으로써 현대 교육에 대한 반성과 시사점을 찾아보고 현대 기독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설립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기독교학교 설립 초기의 사회적 배경과 기독교학교의 설립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 초기라 함은 1885년부터 1910년까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1885년부터 1910년까지의 사회적 배경과 기독교학교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우리나라 기독교학교 설립 초기의 사회적 배경

1885년에서 19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을 정치적, 교육적, 종교적 상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정치적 상황

19세기 초 조선의 사색당파, 탐관오리의 횡포와 이에 따른 민중의 반란은 조선의 국력을 극도로 쇠약하게 하였으며 19세기 중엽을 거쳐 말엽에 이르기 까지 이 나라의 정치,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별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과 청 등 외적에 대항할 수 있는 국력과 기력을 가지지 못했던 이 나라는 백성을 빈궁의 도탄에 빠지게 하였으며 외국인에 대한 불신을 굳히게 되었다(오천석, 1964: 3-4). 따라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으로 하여금 “외국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여 조선이 쇄국정책을 감행하게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 오랫동안 쇄국정책을 펼쳐 오던 조선은 대원군의 하야와 더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당시 아시아 각국은 서양 열강들의 강요된 통상전략으로 인해 개항을 강요당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동양의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었다(백락준, 1973: 61). 중국은 1840-1842년의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일본은 1850년대에 미국의 페리제독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

미양요를 통해 프랑스와 미국의 문호개방에 대한 압력을 받았으나 프랑스와 미국의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인해 쇄국정책을 늦게까지 유지하다 1876년 일본의 운요호 사건으로 강화도조약을 맺고 비로소 개항을 하게 된다.

강화도조약을 필두로 일본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조선은 1882년 5월 22일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어서 같은 해 6월 6일과 6월 30일에 각각 영국, 독일과 수호조약을 맺으며, 1884년 6월 26일에 이탈리아, 1886년 6월 4일에 프랑스와 각각 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된다(채기은, 1977: 40). 이러한 문호개방과 서구열강의 유입은 쇄국정책이라는 폐쇄된 사회에 익숙해 있던 조선인들에게 당혹감과 혼란, 그리고 놀라움을 던져주었다.

## 2) 교육적 상황

19세기 말엽 조선왕조의 교육제도는 성균관, 사학, 향교, 서원 및 서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손인수, 1980: 15). 성균관은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하였고 서울의 사학과 지방의 향교와 서원은 중등교육기관의 역할을, 그리고 서당은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은 오늘날의 교육기관이 각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 각각 독립된 교육기관이었다.

각 학교의 교육내용은 주로 유교적 경전과 중국의 역사와 문학 등이었다. 유교교육의 원리는 주자학의 이기론에 근거한 신분적 상하 질서의 원리로서 철저하게 체제 지향적 목적을 지니는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조선의 신분체제는 소수의 양반 지식층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다수의 상민과 천민으로 구성되는 피라미드형 구조를 의미한다. 조선사회가 그 구조나 정치 체제 상의 혁신이나 개혁이 없이도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피라미드 구조를 옹호하는 교육제도와 목적달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사회는 혼란을 겪게 된다. 즉 양반인구의 증가와 상민과 천민의 신분상승으로 인해 안정된 피라미드형이 점차 역삼각형의 불안정한 피라미드형으로 변

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조선 사회를 병들게 하였다(김인회, 1984: 24-25). 따라서 기존의 보수적 교육체제로서는 사회의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방식을 지향하는 혁신적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실학파의 형성이다.

실학파는 인간평등사상과 이에 기초한 교육의 기회균등, 과거제도의 철폐와 학제의 개혁, 능력에 따른 인재등용, 과학기술의 강조, 신학문의 수용, 민중주체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8세기에 시작되었으며 그 당시 봉건적 정치제도의 틀 안에서의 개혁사상으로서 실제적인 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19세기 후반에 개화사상으로 연결되어 정치, 사회, 문화 교육전반의 문호를 개방하며 국제적 안목을 넓히며 외국의 기술을 이용하여 국력을 기르고 민권강화와 평등사회의 실현이라고 하는 근대화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된다.

### 3) 종교적 상황

미 국무성의 록힐(W. W. Rockhill)은 한국인은 종교적인 감정이 없다고 말했으며 하멜(H. Hamel)은 한국인은 종교에 대해 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한 바 있다(민경배, 1973: 107). 이들의 관점은 매우 피상적이고 부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게일(J. Gale)은 “한국 사람이 그 차원 깊은 곳에 종교적 소박성을 비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하도 종교적이어서 차라리 세상에 맞지 않을 정도” (새문안교회 85년사, 1973: 29)라고 말하면서 한국인의 종교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서명원은 “샤머니즘 혹은 물활론이 이 백성으로

---

1) 기존의 안정된 피라미드형의 사회 구조는 소수의 양반(지배계급)과 다수의 상민과 천민(피지배계급)의 구조 속에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유교의 원리를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함으로써 양반관료가 된 많은 상민에 의해 그 구조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신분 사회 체제의 유지와 지배계급 지향이라는 조선조의 교육목적에서 기인하게 되는 것이며, 교육목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록 오히려 원래의 목적으로부터 멀어지는 사회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

하여금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1968: 29) 고 언급함으로써 한국인의 종교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람은 종교성이 매우 깊은 존재들이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조선의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유교사상이, 위의 교육적 상황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 자리를 잃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은 공백기를 맞이하게 된다. 여기에 대해 민경배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민경배, 1973: 102).

근대 한국은 종교적 생활에 있어서 심한 허탈감을 경험하여 한국 역사를 통해 한 때 전성했던 선이나 불교 및 유교의 정신적 자원이 고갈하고 그 형식과 명분만으로 무게 없는 반복만 되풀이하던 종교적 신앙과 정신생활의 전례 없는 진공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영효가 스크랜톤(Scranton) 목사에게 한국의 교육과 기독교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재래 종교는 지금 기운이 진하였습니다(민경배, 1973: 123).”라고 한 말은 당시 백성의 정신적 갈급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나라 기독교학교 설립 초기의 사회적 배경을 정치적 상황, 교육적 상황, 그리고 종교적 상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정치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세에 대해 문호개방 했으며 이로 인한 두려움과 혼란에 의 노출은 새로운 탈출구를 요구하였다., 교육적인 상황 역시 유교적 교육의 모순으로 인한 세도정치와 관리의 횡포로 새로운 질서구조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것은 개화사상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사상과 현대적 의미의 교육체계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또한 구 한 말의 한국인의 종교적인 공백은 그들의 정신 세계를 이끌어 갈 새로운 형태의 종교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사들의 유입과 그들의 의료사업과 교육 사업은 신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기독교의 전파와 기독교학교의 설립으로 연결되었다.

## 2. 기독교학교의 설립

우리나라가 신교육에 직접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선교사들의 내한과 그들의 학교설립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손인수, 1980: 58)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학교 설립은 배재학당의 설립이다. 스크랜톤 의사가 소개한 두 명의 학생을 1885년 8월 3일 아펜젤러가 맡아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배재학당의 개교일이 되었고 이 후 학생들이 몰려왔다. 고종황제는 아펜젤러의 교육 사업을 만족하게 여겨 1886년 6월 8일 배재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하게 된다(김폴린, 1992: 19-20). 이화학당의 설립은 초대 선교사들과 동행한 메리 스크랜톤 부인이 1886년 5월 31일 한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침으로 이루어졌다(김폴린, 1992: 30). 1886년에 언더우드와 서우정동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 붙어 있는 건물을 활용하여 고아원 형식의 학교로 언더우드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이 학교가 후에 경신학교의 전신이다. 이 언더우드학당은 1891년에 예수교학당, 1893년에 민노아 학당, 1905년에 경신학교로 교명을 바꾸어 가며 신문화를 보급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손인수, 1980: 72-73). 1894년에는 광성 학교, 송덕학교, 정의여학교 등이 지방에 설립되었다. 1897년에는 평양에 송실 학교가 설립되었다.

선교사들은 점차 고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대학을 설립하게 된다. 언더우드는 경신학교를 설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것을 근거로 기독교대학과 신학교의 증설을 꾀하였으며 1915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신학교 대학 부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대학을 개학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연희전문학교의 시작이 되었다. 1897년에 설립된 송실학교는 중학교로부터 시작되었으나 1906년에 대학부를 개설하게 된다(손인수, 1980: 74-76).

1885년부터 1908년 사이에 설립된 기독교학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명인, 1972: 200).



〈표 1〉 초기 기독교학교의 설립 상황

년도	학 교 명	설 립 교 파	설 립 장 소
1885	광혜원(연세대 의대 전신)		서울
1885	배재학당	감리회	서울
1886	이화학당	감리회	서울
1886	경신학교	장로회	서울
1894	광성학교	감리회	평양
1894	승덕학교	감리회	평양
1894	정의여학교	감리회	평양
1895	정신여학교	장로회	서울
1895	일신여학교	장로회	동래
1896	정진학교	감리회	평양
1896	공옥학교	감리회	서울
1897	승실학교	장로회	평양
1897	신군학교	감리회	서울
1897	영화여학교	감리회	인천
1898	배화여학교	감리회	서울
1898	맹아학교	감리회	평양
1898	명신학교	장로회	재령
1900	평양신학교	장로회	평양
1903	승의여학교	장로회	평양
1903	누씨여학교	감리회	원산
1903	정명여학교	장로회	목포
1904	덕명학교	감리회	원산
1904	호수돈여학교	감리회	개성
1904	진성여학교	장로회	원산
1904	곡창학교	감리회	해주
1905	영명학교	감리회	공주
1906	계성학교	장로회	대구
1906	신성학교	장로회	선천
1906	보성여학교	장로회	선천
1906	의명학교	안식교	순안
1906	한영서원	감리회	개성
1906	미리흠학교	감리회	개성
1907	약현학교	천주교	서울
1907	항피아여학교	장로회	광주
1907	신명여학교	장로회	대구
1907	기전여학교	장로회	전주
1908	신흥학교	장로회	전주
1908	창신학교	장로회	마산

초등학교의 설립에 관하여서는 1909년 북 장로교 선교부의 보고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각지에 589개의 초등학교가 교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 모든 학교는 한국 교인의 자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1902년에 63개교에 845명의 남학생과 148명의 여학생이 있었는데 1909년에는 남학생이 10,916명, 여학생이 2,511명 재학하는 589개의 학교들이 있었다(손인수, 1980: 78).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은 1914년에 설립된 이화유치원으로서 브라운 리가 교사로 활동했다. 1915년에는 배화유치원이 소아예비과로 설립되었다가 1919년에 유치원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에는 아현 유치원이 개원하였으며 같은 해에 영화유치원이 설립되었으며 1918년에는 중앙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속유치원이 설립되었다(이선희, 1973: 169-172).

1909년까지 설립된 기독교계 학교의 통계는 장로교가 501개교, 감리교가 158개교, 성공회가 4개교, 안식교가 2개교, 종파 미수가 84개교, 천주교 64개교로 모두 796개교였다(손인수, 1973: 79; 최명인, 1972: 200). 이봉구의 통계에 의하면 1910년 현재 우리나라에 인가된 학교의 수는 2,250교이며 이 가운데 823교가 기독교계통에 의해 경영되는 학교들로서 전체 학교 수의 1/3이 넘는다(이봉구, 1973: 69).<sup>2)</sup>

---

2) 손인수의 선교사의 내한과 미션학교의 설립(『한국개화교육연구』)에 실린 바 있으며 1909년의 장로교노회와 감리교파대회 보고에 의하면 1910년 2월 현재 기독교계통의 학교는 장로교가 605교, 감리교가 200교에 이르며 성공회나 천주교 및 안식교 등에서 설립한 학교들을 합하면 기독교학교가 무려 950여 교에 달한다(79). 『배재팔십년사』에는 1910년 5월 현재 전국적으로 인가된 학교의 수가 2250교이며 이중 기독교학교는 826교라 기록되어 있다.

### III.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사회적 역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역할은 민족운동과 구국운동, 여성운동,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민족운동과 구국운동

한말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선교사들이 내한을 하게 되고 기독교가 한국 땅에 전래되면서 기독교는 민족운동과 구국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기독교가 민족운동과 구국운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 기독교 자체가 지니는 성격 외에도 한국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자리를 잡고 있다.

1876년의 한일수호조약과 1882년의 한미통상수호조약을 기점으로 개화정책이 이루어졌으며 선교사들의 내한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1884년에 선교사 알렌(H. N. Allen)이 주한 미국 공사관의 주치의 자격으로 내한하였으며, 1885년에는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내한하였다. 이때 한국에는 전통적인 비 외법령(非外法令)이 발효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직접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간접적인 선교의 방법으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채택하였다(오인택, 1982: 204). 따라서 선교사들은 교육 사업으로 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 때 선교사들에 의해서 설립된 기독교학교들은 민족적인 입장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선교사들이 민족적인 입장에서 교육 사업을 펼쳐야 했던 이유는 우선 천주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천주교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종교라는 편견이 팽배해 있었다.<sup>3)</sup> 따라서 선교사들이 포교활동을

3)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선교사는 가톨릭신부들로서, 1837년에 프랑스인 모방(Pierre P. Maubant)신부, 1838년에 앙베르(Laurent M. Joseph Imbert)신부와 샤흐망(Jacques H. Chastan)신부가 들어왔다. 제사문제로 천주교도들이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지나친 외세 의존의식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고 이를 위해 기독교는 민족과 국가를 구하는 종교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일이 필요했다(민경배, 1981: 80-81).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인들이 기독교를 민족종교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박영효는 “종교가 성하면 나라도 성한다.”고 하면서 1884년에 예수교가 성한 나라들은 구미의 최강국들이니 우리나라도 백성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신봉할 수 있게 하자고 상소하였다(오인탁, 1982: 202에서 재인용). 이 상소문은 기독교가 한국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한 그는 1885년에 의료선교사 스크랜톤(W. B. Scranton)을 만나 “우리 백성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 기독교입니다.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교육하고 향상시켜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입헌 정부를 수립하고 장래에 귀국과 같은 자유스럽고 개화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Mackenzie, 1908: 54). 김옥균도 1886년에 외국의 종교를 도입하여 자주강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상소를 하였으며 선교사 맥클레이(R. S. Maclay)를 도와 고종황제로부터 조선에서의 선교사의 활동과 의료와 교육활동에 대한 허락을 받아 내었다(MacLay, 1895, 289). 고종황제 또한 선교사들이 주장하는 서양 국가들의 부강이 기독교의 신봉에 있다고 하는 말을 믿고 기독교를 통한 부국에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Underwood, 1918: 204).

이성삼(1980)은 한국교육사에 교육적 혁명을 가져온 것은 배재학당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오천석은 배재학당이 처음으로 서양식 교육제도를 실시하여 서양의 문물과 사고방식을 처음으로 이 나라에 전하였고 서민과 양반의 차별을 깨뜨려 교육기회균등의 원칙을 세웠으며, 노동의 정신과 자주 자립의 사상을

---

병인양요를 통해 신부들이 프랑스 제국주의의 앞잡이었다는 비난을 받게 되면서 가톨릭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리피스(W. E. Griffis)는 실제로 신부들이 군함의 수로 안내인 및 스파이로 활약했다고 주장하였다. 한용진(1994: 181-182) 참고.

을 가르쳤고 교육의 목적을 개인의 영달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서 사회봉사에 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오천석, 1964: 75-76). 특히 배재학당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협성회(1896년 이승만과 서재필 등이 중심)와 독립협회(서재필, 윤치호, 남궁억 등이 중심)는 민족구원에 작용했던 결정적인 힘이었다(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5: 186).

기독교학교가 구체적으로 민족을 살리며 구국운동을 한 예를 이만열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이만열, 1980: 188-189).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보면 선교의 한 방편으로서 교육 사업을 시작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기독교의 전도 자체가 심령상의 구원과 기독교를 믿는 자들의 지상에서의 이웃과 사회, 민족과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의 선교 사업으로서의 교육은 자연히 안으로는 자기 사회의 봉건적 요소를 개혁하고, 밖으로는 제국주의에 바탕 한 침략강권주의에 대하여 민족과 국가를 보존해야 할 사명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기독교 교육도 반봉건, 사회개혁 의지와 반침략, 자주독립의 사상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기독교를 민족과 국가를 구하는 종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이것을 알고 있던 선교사들은 기독교 전파를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육 사업을 택했고 이를 위해 기독교학교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기독교학교는 이 민족을 개화하며 국가를 살리는 운동을 할 수 있었다.

## 2. 여성운동

구한 말 한국에서 여성의 지위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 당시의 한국의 상황에서 여성의 위치를 이승만의 어린 시절 회고담을 통해 알 수 있다(손인수, 1980: 129-130).

내가 여섯 살 때 뜻도 모르며 외워서 천자문을 떼었다. 언덕길을 십리 이상 걸어서 학교, 서당을 가야 했다...만일 내가 중국 글을 배우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 나는 종아리를 맞아야 했다.

아, 얼마나 나는 내가 여자였으면 하고 바랐던가! 여자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그 알 길 없는 글자들을 배워야 하는 의무도 없다.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어서 남자 아이들과 따로 떨어져 집에만 있어 집 안 일을 돕고, 배우기 쉬운 언문, 한글을 배우면 된다.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여아들은 정규적인 교육 없이 늘 집 안에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어린 여아에게 뿐만 아니라 10세 이상의 소녀들에게도 해당된다. 여기에 대해 비숍(I. B. Bishop)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의 소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손인수, 1980: 131).

이 세상의 꽃으로 읊어지는 젊은 아가씨를 볼 수 없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여자들은 이같은 사회조직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자유를 동경한다는 법도 없다. 수백 년 동안의 은폐생활은 여자의 자유정신을 마멸시켜 버렸다.... 한국에는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더우드(Underwood)는 그 당시의 여성을 어린 시기부터 결혼을 한 후에도 안식처로 옮길 때까지 감금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서술하고 있다(Underwood, 1993: 47). 당시의 여성에 대한 여러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한말의 여성들은 거의 집안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그들의 지위란 매우 보잘것 없고 단지 남성을 위한 존재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여성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여권신장에 기여한 선교사들의 여학교설립은 그야말로 문화의 변혁이라고 볼 수 있다.

1885년 6월 내한한 여선교사 스크랜톤은 선교사업의 중요한 한 분야로 여학교를 세울 것을 결심하고 1886년 5월경에 이화학당을 설립하게 된다. 이화학당의 교육목적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들며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무결한 한국을 만드는 것이었다. 교육내용은 서구학문, 기독교정신, 한국 전통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수예나 바느질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처럼 이화학당의 설립은 여성교육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어 오랜 세월 억눌려 온 여성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안방에 갇혀 있던 여성을 바깥사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회는 이화학당에 다니는 학생들의 의식혁명뿐만 아니라 직, 간접적으로 수많은 여성들 속에 문화혁명의 변화를 가져왔다(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 1985: 190).

이화학당의 설립에 이어 1894년에 정의여학교(1894), 정신여학교와 일신여학교(1895), 승현여학교(1896), 영화여학교(1897), 배화여학교(1898), 승의여학교, 누씨여학교, 정명여학교(1903), 호수돈여학교, 진성여학교(1904), 보성여학교(1906), 함피야여학교, 신명여학교, 기전여학교(1907) 등이 설립되어 우리나라의 여성교육에 기여하였다.

### 3.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석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은 청일전쟁으로 말미암아 한국민의 신학문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과 선교사들의 활동으로 교회학교를 통한 초등교육의 보급, 중등교육기관의 설립과 발전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요청되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근대 고등교육은 미국 고등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한용진, 1994: 184). 그 이유는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 숭실학당 등 오늘날의 대학의 모델이 되는 학교들이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1885년 8월 서울에 배재학당이 설립되었다. 이 학교를 설립한 아펜젤러는 한국에 할 일 많은 중에도 교회학교와 일반학교에 필요한 교원을 양성할 기회

를 찾던 중 1889년부터 대학과정의 설치를 구상하다가 1891년 배재칼리지 (Paichai College)라는 이름으로 미국 선교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배재백년사, 1989: 64). 1893년 배재학당은 신학부와 학술부로 나뉘고, 1895년부터 학술부는 다시 영어과와 국한문과로 나뉘어졌다. 아펜젤러가 순직할 때까지 배재칼리지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다가 1911년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부가 연합하여 하나의 연합기독교대학을 운영하자는 논의 하에 배재학당 안에 연합대학이 설치되어 배재대학이라 불렀다. 이것은 1914년에 연합기독교대학으로 논의되다 1915년 경신학교 대학부가 출범하게 된다. 이 학교가 바로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모체로서 1917년 사립연희전문학교로 정부의 인가를 받게 된다.

한편 1897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배위량(W. M. Baird)은 평양에 숭실학당을 세운다. 이 학교는 처음에는 평양 학교라고 불리다가 1901년 숭실학당이라 칭하게 되고 1905년 대학부를 설치하여 대학과정의 교육을 시작하여 1906년 합성숭실대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숭전대학교80년사, 1979: 57).

1886년 스크랜톤에 의해 설립된 이화학당은 프라이(L. E. Frey)가 당장을 맡으면서 국내 지도자는 국내에서 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신념은 실천에 옮겨져 1910년 대학과를 설치하게 된다. 그리하여 the Ewha Women's College라는 명칭이 주어진다(한용진, 1994: 190).

1885년 알렌에 의해 세워진 왕립병원 광혜원은 1886년부터 부설로 의학교육을 실시하다 1899년 제중원 의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1909년 교명을 사립 세브란스 의학교로 바꾸었다. 1917년에는 전문학교로서 조선 총독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연세대학교사, 1971: 1335). 이 학교가 바로 오늘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시대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된 대학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인재와 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화와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절



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 IV. 초기 기독교학교의 역할이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의미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는 그 당시 일반학교 수의 3분의 1이 넘는 많은 기독교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당시의 백성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었으며 구국운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또한 집 안에만 갇혀 있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남녀평등 의식과 개화사상을 갖게 하여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다. 대학의 설립으로 인해 국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재양성과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에 새로운 장을 열어 주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학교가 그 당시의 사회에서 했던 역할을 통해 현대 기독교교육에 주는 함축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 1. 기독교학교의 수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 초기 전체 학교의 수는 2250교<sup>3)</sup>였고 기독교학교의 수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 약 800여교 이상 950교로 전체 학교 수의 삼분의 일이 넘는 수에 달하며, 1907년 989개의 교회 수(김영재, 1994, 120)를 감안할 때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오늘날의 기독교학교의 수와 비교해 볼 때 많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학교(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가 338교, 고등학교(일반계, 실업계 고등학교)가 4, 288교, 중학교가 2, 999교로 모두 7, 625교가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이다(교육인적자원

3) 김영재(1992)에 의하면 1910년 사립학교의 수는 3000교이다.

부, 2006). 이에 비해 기독교학교는 대학이 55교, 고등학교가 167교, 중학교가 127교로 모두 347교([www.kfcs.or.kr](http://www.kfcs.or.kr))로 전체 학교 수의 20분의 일에 못 미치는 수치이다. 2005년 현재 개신교의 교회 수는 60,785개에 달하며 이는 1907년도의 교회의 수보다 60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것을 표 2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07년과 2005년도의

교회 수, 기독교학교 수, 일반학교의 수 비교

년도	교회수	기독교학교 수	일반학교 수
1907	989	950	2250
2005	60,785(6100%)	347(37%)	7625(300%)

이러한 비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2005년 현재 개신교 교회의 수가 60,785개(문화관광부, 2005)로서 초기 교회의 수보다 60배가 넘는 데 비해 기독교학교의 수는 전체 학교 수의 20분의 1 정도에 그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의 수가 전체 학교 수의 3분의 1이 넘었던 것을 고려할 때, 기독교계가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음과 기독교의 역할이 사회에서 많이 퇴색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경우, 우리나라 구한말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근대식 대학이 최초로 설립, 운영되어 많은 인재와 지도자들을 양성함으로써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계몽하여 민족을 이끌어 갔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기독교대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중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 중고등학교의 수가 7,287교이며 이 가운데 기독교학교가 294교이다. 학교 수의 감소에서 기독교의 신앙전수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등한히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도 처음(1910년대)에는 기독교교

육을 위해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되었던 유치원이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적 관심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3년도 통계청의 자료와 이선희(1973)의 연구를 근거로 유치원 설립에 관한 상황을 표 3으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우리나라 기독교 유치원의 수와 설립자(재단)

설립자	1910년대				1930년대	1960년대	현재(2003)
	1914 선교사	1916 선교사	1917 선교사	1919 선교사	기독교선교회	기독교재단, 교회	개신교
유치원	이화	중앙	배화	영화	한국 유치원의 3/4	전체의 과반수	303(4,008)

표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2003년 현재 기독교 정신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1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처음 우리나라에 유치원이 세워질 때의 상황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학교 수의 감소는 단순히 수적인 감소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수의 감소는, 물론 국가의 교육적 정책과 개인적인 관심에 의해 일반 학교들의 설립이 많이 이루어진 이유도 있지만<sup>4)</sup>, 기독교계의 교육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교 신앙을 사적인 부분에 한정하고 공적인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착각하는 세속주의 내지는 인본주의 철학의 영향을 교회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수양관과 기도원은 증가했지만 기독교학교를 세우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는 많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할 것이다.

4) 김인희는 일반학교의 증가 원인을 50년대 중반부터 60년대 중반에 걸친 인구이동과 함께 생겨난 각 급 학교의 증가와 교육과 사회계층 상승을 동일시하는 가치관에서 찾는다(1984: 34참조).

## 2.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학교가 설립될 당시의 한국의 상황은, 앞의 사회적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으로는 유교문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모순과 밖으로는 문호개방과 외세의 침입으로 국력은 매우 쇠약하였고 백성들은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던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때 기독교학교는 그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깨우치는 교육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교육을 통해 이 민족의 눈을 열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 사머니즘과 유교전통으로 불신앙과 미신적인 지식에 붙들려 있던 민족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하며 복음의 참 진리를 통해 이 민족의 생활 전반에 걸친 각성과 영적 깨우침을 불러 일으켰으며 전통교육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회가 안고 있던 국가적 어려움과 병폐를 교육을 통해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에 비하여 현대의 기독교학교는 초기의 기독교학교만큼 사회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06)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3.1%인 2497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불교가 22.8%, 기독교 18.3%, 천주교가 10.9%를 차지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불교는 3.9%인 40만 5000명, 천주교인은 74.4%인 219만 5000명이 증가했으나 그리스도인은 1.6%인 약 14만 4000명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 수의 감소와 함께 그 원인으로 기독교교육의 부재와 이로 인한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의 감소를 볼 수 있다. 초기 기독교학교가 설립될 당시의 사회상이 어두웠듯이 현대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다원주의의 배경 하에 상대주의가 판을 치며 성윤리는 땅에 떨어졌고 물질이 신이 되고 있으며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 말로는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외치지만 실제적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

격적인 가르침보다 지식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성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적으로도 다원주의의 영향을 받아 가톨릭과 불교가 연합하며 기복주의적 신앙 내지는 기독교계 사이비 종교집단들의 변창, 혼합주의 등이 기독교계를 어지럽히고 있다. 또한 오존층의 고갈과 온실효과, 인간의 수태 및 현대의 복제기술이 안고 있는 비윤리적 측면 등 복잡한 현대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의 개발과 확산은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기독교학교의 내용은 크게 서구학문으로서 자연과학, 세계지리학 등 새로운 지식 체계에 관한 소개와 성경을 교재로 한 기독교교육의 시행 그리고 한글과 한문교육, 여학생의 수예나 바느질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개발함으로써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전인교육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삶이 변화되어 갔으며, 그 변화된 삶은 점차 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었다(이만열, 1989, 208). 초기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초기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

학교명	시기	교과목
배제학당	초창기	성경, 한문, 영어, 지리, 수학, 생물, 공작, 체육
이화학당	초창기	성경, 영어
경신학교	1900년	성경, 교회사, 국어, 한문, 영어, 산술, 대수, 화학, 물리, 천문학, 박물, 지리, 한국사
정신여학교	1903년	성경, 한문, 역사, 지리, 산술, 습자, 체조, 음악, 가사, 침공, 과학, 물리, 생물
승의여학교 (평양)		성경, 한문, 산학신편(산수), 지리, 역사, 생물, 동물, 식물
광성학교 (평양)		국문, 한문, 기독교교리
명선여학당 (공주)		성경의 읽기, 쓰기, 국문의 작문과 편지쓰기, 산술, 음악(성가), 미술, 영어

(출처: 김정효, 2007: 203)

위의 교육과정을 볼 때 성경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50%에서 최저 15%에 이른다.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표 5참조)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상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볼 때는 초기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 역시 이원론적인 접근에 의해 구성된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원화 편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동적인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오늘날의 기독교학교에서의 성경교과목이 여러 교과목 가운데 하나로 가르쳐지거나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르기 위해 형식적인 의미로 가르쳐지는 것에 비해, 성경은 당시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가장 중심된 자리를 차지하는 과목이었으며 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들이 의도하는 선교의 목적과 직접 연결된 과목이었다. 초기 선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응답에서 더 나아가 개인을 둘러싼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통전적 의미에서의 이해였다. 따라서 그들이 운영하였던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표면상으로는 이원론적인 접근으로 보이지만 실제 교육활동은 이원론적인 접근을 극복한 전인적 의미에서의 기독교교육이었다고 볼 수 있다(김정효, 2007).

이에 반해, 현재 기독교고등학교 교육의 내용은 전인교육보다는 입시위주의 지식교육에 치우치고 있으며(강영택, 2007; 정희영, 정희정, 2005; 박봉목, 2004; 김선요, 2004) 기독교적인 내용이라고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예배와 성경과목에 국한되어 있다(양금희, 2000).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초래하기 힘들며 개인의 삶의 변화 없이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

현재의 기독교학교는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기독교대학의 경우,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초기의 기독교 대학들이 감당하였던 역할, 특별히 기독교지도자를 배출해 내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유아교육과가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기독교대학들의 교육과정을 인터

넷을 통해 찾아 본 것을 근거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서울과 경기도 지역 기독교대학의 유아교육과 교육과정의 예

대학명		기독교관련과목		전공(선택) 개설과목
		교양필수	전공(선택)	
기독교 대학	서울여대			31
	연세대			37
	이화여대	기독교와 세계		27
신학계열 대학	강남대		유아기독교교육	31
	서울신대	기독교의 이해, 성서의 이해	기독교유아교육	41
	성결대	구약의 이해, 신약의 이해, 세계교회인물사, 알기 쉬운 성경교리	유아종교교육	31
	안양대			41
	한국성서대			42

위의 표 5를 보면 이름은 기독교대학으로서 교육의 목적이 기독교적인 이념에 의해 서술되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교과목은 아예 없거나 한두 과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체 전공개설과목과 기독교과목의 비율이 최고 16%에서 0%에 이른다. 이것은 교양필수를 전공과목에 넣어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유아교육과 한 과에만 해당되는 사실은 아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에서 운영되는 각 과의 교육과정이 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할 수 없는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정희영과 정희정(2005)의 ‘한국 기독교 학교 교육의 현황과 그 대안’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이 전반적으로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으로서 그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1961년부터 일어난 정부의 전면적인 정치권력과 행정적 간여의 강화로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가 교육내용이나 방법상의 개성을 지닐 수 없게 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김인희, 1984: 33). 이러한 교육과정으로는 기독교세계관을 지닌 지도자를

양성해 낼 수 없으며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지닐 수 없게 된다. 오히려 쉐퍼(F. Schaffer)의 말처럼 자연이 은혜를 먹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며 사회의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의 내용이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이 기독교세계관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한다.<sup>5)</sup>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핵심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에드린(Edlin)은 학교를 기차에 비유하면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은 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진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Edlin, 2004).

### 3. 교사의 지도력과 소명의식에 대한 시사점

초기 기독교학교가 당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기독교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들, 즉 기독교지도자들의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도력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지도력은 그들이 배운 학문과 신앙적 배경으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학교가 설립될 당시 선교사들의 학력을 보면 의학박사이거나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나온 선교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광혜원을 세운 선교사 알렌은 의사였으며 시 병원을 세운 스크랜튼은 의학박사였다. 배재학당을 세운 아펜젤러는 미국 유수의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Philip Schaff)가 졸업한 프랭클린 마셜 대학(Franklin-Marshall College)을 졸업하였으며 신학은 드루 신학교

---

5) 초기 기독교학교에서의 교육이 기독교세계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학과의 수업에 기독교적인 성격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등의 기독교적 활동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기독교교육의 발전과 비교하여 볼 때 현재의 기독교학교들이 기독교세계관에 의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것과 견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rew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학하였다. 아펜젤러를 도와 함께 교육 사업을 하고 경신학교의 전신인 예수교 학당을 세운 언더우드 역시 뉴욕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네덜란드 개혁 교회 계 뉴브란스위크 신학교에서 신학을 연수하였다(민경배, 2000: 148-149). 스크랜튼, 아펜젤러는 감리교선교사들로서 웨슬리의 복음주의 열정을 계승한 전형적인 웨슬리안들이었다. 아펜젤러가 졸업한 드루 신학교는 웨슬리 복음주의의 모델이 되는 학교로서 학문적 훈련과 개인적 경건, 신앙연구와 신앙체험, 신학과 예배가 별개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다(박용규, 2006: 476-480). 이러한 전통을 지닌 학교에서 수학한 아펜젤러는 자연히 성경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자신이 배운 학문을 신앙 안에서 실천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언더우드가 졸업한 뉴브란스위크 신학교는 청교도들이 갖고 있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성과 견줄 만큼 개혁주의 안에서 복음주의 정신을 갖고 있던 학교였다(박용규, 2006: 466-467). 따라서 언더우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것은 교육을 통한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우리나라 초기의 선교사 대부분이 대학에서의 일반학문의 전공과 신학교에서의 신학공부를 통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리고 복음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비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것이 당시의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교사들 가운데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한 교사들은 흔치 않다. 또한 일반대학은 말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대학조차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 교육과정은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에서 공부한 교사라고 해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현대를 조명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대의 특징인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도 매우 낮은 상황이며 기독교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선행조건인 기독교세계관의 소유에 있어서도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정희영(2007)의 그리스도인 유아교사의 기독교세계관

실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217명)이었던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85.7%가 인정하였다. 반면에 가끔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고 대답한 교사가 33.2%나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인 교사이면서도 기독교세계관에 의해 사고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기독교대안교육협의회에 가입한 회원 학교로서 일반적으로 기독교학교라고 칭하는 미션스쿨이 아닌, 기독교철학에 의해 교육 목적을 설정하고 기독교정신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기독교학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세계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학교의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65.2%인 반면 성경과 각 교과목의 통합정도를 묻는 질문에 39.5%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기독교세계관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음을 나타내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사들이 기독교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정희영, 정희정, 2005). 따라서 현대 기독교지도자들에게 현 사회의 구조와 사회상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이것을 성경의 안목으로 해석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독교세계관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독교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사재교육을 보다 체계적이며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기독교학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의논하여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강사도 공급해 준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교사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광(1979)은 이미 30여 년 전에 현대인의 의식구조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를 위한 기구와 연구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초기 기독교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들은 성령이 충만하며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들의 교육은 살아 있었고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독교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엘리

트에 속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는 자들이었다(박용규, 2006, 461). 그들이 본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자초 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들이 자국을 떠나 어려운 나라에서 그들의 목숨을 바친 이유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받은 소명의식 때문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학교 교사들의 소명의식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우 소명의식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절반 이하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정희영, 정희정, 2005: 188). 따라서 현재 기독교학교의 교사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헌신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의식에 대한 자성이 요구된다.

## V. 결론

신명기 6장 4-9절은 기독교교육의 근간을 설명하는 구절이며 창세기1장 28절의 문화적인 명령은 기독교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이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구절은 수없이 많으며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다. 초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기독교학교를 통해 바르게 구현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을 통해 그 당시에 뚜렷이 구별되었던 신분차별, 출신지방과 성별의 차이를 성경의 평등사상으로 무너뜨리고, 기독교 특유의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역사의식과 인간평등을 이상으로 하는 반독재적 저항정신을 키워 줌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민족의식과 구국정신을 배양하여 어두운 사회에 소망을 주고 해야 할 일을 제시함으로써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현대의 기독교도 초기의 기독교가 기독교학교의 설립을 통해 그 시대의 사

회적 역할을 감당했듯이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적절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유출할 수 있다.

첫째, 교회에서의 기독교학교에 대한 관심의 고취와 재정적 투자로 기독교 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기독교학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목회자들에게 기독교 학교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독교지도자의 양성을 통해 사회에 기독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기독교학교에서의 기독교적 특징을 갖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일반학교에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학교의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닌, 기독교세계관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훈련받은 교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되며 이는 학교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의식개혁을 통해 가능해진다. 실제적으로 교육과정의 개편을 위한 기독교교육과정연구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기독교교육과정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의해 가르칠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사재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현재 기독교교육연구소나 개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이나 교사의 영성에 관련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구소와 각 학교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 재조정,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하고 이것을 통해 기독교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런던 현대 기독교 연구소(London Institute for Contemporary Christianity) 같은 연구기관의 활발한 역할이 필요하다. 물론 여러 신학대학교 부속 기독교교육연구소에서 현 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기는 하지만, 세미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기독교학교 교사들의 소명의식과 영적 각성이 요구된다. 단순히 일반적 차원에서의 교사의 소명이나 직업의식으로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오늘도 한결같이 창조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원리 앞에 개인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실하게 붙잡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학문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헌신될 수 있는 교사들이 요구된다.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우회에서의 성경공부 차원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성경훈련원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영택 (2007), “기독교학교에서의 대학입시에 대한 이해,” 『입시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제 2회 학술대회, 117-137.
- 고원석 (1993), 한국 기독교교육 역사서술을 위한 방법론의 기초와 그 적용,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창구논문.
- 김선요 (2004), “기독교대한학교교육의 현황과 비전,” 『교육교회』, 10월호, 4-9.
- 김영재 (1994), 『한국교회사』, 서울: 개혁주의신앙협회.
- 김인희 (1984), “기독교 100년과 한국교육,” 『기독교사상』, 29(5).
- 김일광 (1979), 한국 초기 기독교 교육사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석사학위창구논문.
- 김정효 (2007),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학교 교육과정,”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예영출판사.
- 김폴린 (1992), 『한국 기독교교육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문화관광부 (2005),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민경배 (1981), 『교회와 민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민경배 (1973),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민경배 (2000), 『한국기독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배재대학교 (1989), 『배재백년사』, 서울: 배재대학교출판사.
- 박봉목 (2004), “한국기독교학교교육의 진수,” 『기독교학교교육』, 5집, 64-77.
- 박용규 (2006),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 백낙준 (1973),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새문안교회 (1973), 『새문안교회 85년사』, 서울: 새문안교회출판사.
- 서명원 (1968), 『한국교회성장사』, 이승익 역, 서울: 기독교서회.
- 손인수 (1980), 『한국개화교육연구』, 서울: 일지사.
- 송실대학교 (1979), 『송전대학교80년사』, 서울: 송실대학교출판사.
- 양금희 (2000), “기독교학교, 학교교육의 대안인가?,” 『교육목회』, 12월호, 39-46.
- 오인택 (1982), “일제하 민족교육과 종교교육의 갈등,” 『근대 민족교육의 전개와 갈등』,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소.
- 오춘희 (2005), “21세기 한국 기독교의 교육적 과제: 기독교학교와 홈스쿨링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의 기독교학교 및 홈스쿨링』,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13-29.
- 오천석 (1964), 『한국신교육사』, 서울: 현대교육총서출판사.
- 연세대학교 (1971), 『연세대학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사.
- 이만열 (1980), 『종교교육투쟁』, 서울: 민족운동총서 편찬위원회 편.
- 이만열 (1989),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 이봉구 (1973), “기독교학교교육사,” 『한국기독교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 이선희 (1973), “한국기독교유아교육사,” 『한국기독교 교육사』,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 이성삼 (1980), 『한국감리교회사』, 서울: 기독교 대한 감리회 교육국.
- 존 스톱트 (2005),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서울: IVP.
- 정희영 (2007), “현대사회와 기독교유아교사,” 『어떤 교사가 될 것인가?』, 한국기독교 유아교육학회 제 7차 추계학술대회, 3-49.
- 정희영·정희정(2005), “한국 기독교학교 교육의 현황과 그 대안,” 『신앙과 학문』, 10(2), 169-211.
- 채기은 (1977), 『한국교회사』,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 최명인 (1972), “근대학교의 성립,” 『한국교육사』, 서울: 교육출판사.
-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1985), 『한국교회와 신학의 과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한용진 (1994), “기독교계 학교에 의한 근대 한국 고등교육 고찰,” 『교육문제연구』, 6, 177-194.

- Edlin, R.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학문연구소 교육학분과 역 (2004), 『기독교교육의 기초』, 서울: 그리심출판사.
- Mackenzie, F. A. (1908), *The tragedy of Korea*, London: Hadder & Stoughton.
- MacLay, R. S. (1895), “Korea's Permit to Christianity” ,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IX(8), 280-300.
- Underwood, G. H. (1989), *The call of Korea: political-social-religious*, 이광린 역 (1993), 『한국개신교수용사』, 서울: 일조각.
- Underwood, G. H. (1918), *Underwood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evell.
- [www.kfcs.or.kr](http://www.kfcs.or.kr)

**Abstract**

**Historical Concerns on the Social Role  
of Christian Schools  
in the Early 20th Century of Korea**

Hee Young Jeoung(Cho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uggestions and countermeasures to the problem of today's Christian education through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ast by analytical research.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 school, the social role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e implications of the social role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for current Christian education were dealt with. In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 school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political, educational and religious context as social background were described. In the part of the establishment of Christian school Christian schools which were founded from 1885 to 1909 were explained. As the social role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national movement, save-the-nation drive, women's liberation movement and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were mentioned. In the implications of the social role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for current Christian education, the number of Christian



schools, the curricular of Christian schools, and Christian teachers' leadership and calling were discussed.

From this study there are several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ministers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onstruction of Christian schools and support them financially. Seco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Christian curriculum and to establish the institute for Christian teachers' re-training. Third, a research institute which suggests Christian leaders' duty and the counterproposal for Christian education is essential. Last, the calling and spiritual awakening of Christian teachers are indispensable.

**Key words:** the social role of Christian schools, the number of Christian schools, the curricular of Christian schools, the leadership and calling, Christian teachers' re-training